

공원·녹지 조성체계 확립을 위한 녹화정책변화 연구

- 구미시 일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대상으로 -

남계우* · 정태열** · 박금미***

*구미시청 공원녹지과 ·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I. 서론

구미시는 풍부한 인적자원과 낙동강변에 입지한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1970년에 지방공업개발법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산업공단이 들어서고 급격한 공단도시화 과정을 거쳤고, 현재는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도시공원계획이 추진되고 있다(송태갑과 안봉원, 1994).

민선 4기인 2006년부터 녹색환경 도시로 바꾸는 일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이 추진되면서 도심 내 식수량의 증가와 함께 가식적인 녹피울 향상과 조경관련산업의 확대로 일자리창출 등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과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단 도시인 구미시가 지자체에서 시행된 일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2006~2015년)으로 녹색생태환경 도시로 변화되는 정책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공원·녹지 조성체계 확립을 위한 녹화정책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공원·녹지 녹화정책 변화

구미시의 공원·녹지 녹화정책 변화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977~1994년까지는 관 주도 공원·녹지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민선 1기(1995~1998년)와 민선 2기(1998~2002년)는 공원녹지의 중요성 인식 및 정책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민선 3기(2002~2006년)는 새로운 정책구상 및 수립, 민선 4기(2006~2010년)부터 민선 5기(2010~2014년), 민선 6기(2014~2018년)는 공공 및 민간 나무심기 정책 시행 및 모니터링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1 참조).

먼저 1970년대의 국가정책으로는 경제 개발계획과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 나무심기 확대와 가로환경 개선의 정책이 대두된 시기였다. 이에 구미시는 산업공단 개발계획의 우선 정책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도심 속 공원·녹지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1978년 선산군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을 합쳐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택지개발지구

내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었다. 이 시기의 나무심기 목표상으로는 푸른 구미 가꾸기 운동이 시행되었다.

민선 1~2기(1995~2002년)는 공원녹지의 중요성 인식 및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민선 1기(19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로 인해 대부분의 도시 목표체계는 폐적하고 푸른 도시(인천), 숲속의 공업도시, 쾌적한 공업도시(울산), 푸르름의 새로운 탄생(서울) 등 도시환경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도시구성요소로서 공원녹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박미화와 이명우, 2002).

1996년 구미시 강동지역에 국가산업단지(4공단)가 착공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민선 2기(1998~2002년)에 IMF사태가 발생되면서 공원녹지과는 도시과로 흡수되었고, 그에 따른 공원녹지 정책의 구심점에 문제가 나타났다.

민선 3기(2002~2006년)는 새로운 정책구상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단편적인 공원·녹지의 확충보다 체계적인 계획하에 추진되는 개발계획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정책목표상으로 “푸른도시, 푸른구미21”을 실천과제로 제기하였다. 이에 200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민선 4~6기(2006~2018년)는 공공 및 민간 나무심기가 본격 시행되고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적극적인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민선 4기(2006년)에 들어서면서 구미시 도시녹화 정책 방향을 먼저 수립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이며, 관 주도의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형식적, 하향적 조직체계하의 참여 모습에서 공공·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점차 자발적인 참여(그린오너제)로 변화되었다. 그에 따른 공원녹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78년 48백만원(0.66%)에서 2017년 45,620 백만원(4.07%)로 대폭 증가되었다.

III. 결론

본 연구는 공단 도시인 구미시가 지자체에서 시행된 일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으로 녹색생태환경 도시로 변화되는 과정을

표 1. 구미시 지방자치제 전·후의 공원·녹지 녹화정책 변화

구분	1977~1978년	1979~1987년	1988~1994년	1995~1998년 (민선 1기)	1998~2002년 (민선 2기)	2002~2006년 (민선 3기)	2006~2010년 (민선 4기)	2010~2014년 (민선 5기)	2014~2018년 (민선 6기)
정책변화	관 주도 공원·녹지 사업 시행			공원녹지의 중요성 인식 및 정책의 문제점 대두		정책구상·수립	공공·민간 나무심기 정책 시행 및 모니터링		
정책방향	새구미사 창조, 밝고 건강한 새구미 건설	밝고 푸르고 활기찬 도시건설	밝고 푸른도시 건설	함께 뛰는 시민, 앞서가는 구미	함께 뛰는 시민, 앞서가는 구미	젊은 도시 열린미래	자연이 숨쉬는 도시, 기업이 커가는 도시, 행복이 샘솟는 도시	푸른 숲속의 도시, 살기좋은 도시건설	시민중심 도심공간 바꿈, 휴식 공간 확충, 안전한 녹색도시 조성
정책 목표상	전원도시건설 총화단결 질서확립 공업화 및 개발 촉진	시민의식함양 푸른 구미 교통 인프라 확충 공단 지원 체육 진흥	화합안정 민의 존중 시민 복지 지역개발	푸른도시 쾌적한 도시건설 지역개발 복지문화	푸른 구미21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실현 인간중심도시개발 개성적 문화창출	활기찬 경제 따뜻한 복지 멋있는 문화 쾌적한 환경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탄소제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시민건강 운동	일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 명품수변 도시조성 행복마을조성	제2일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 도시녹화운동 저수지 생태공원
나무심기 운동 목표상	푸른 구미 가꾸기 운동			오십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일천만그루나무심기 운동 - 공공 625만본, 민간 380만본		제2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공원 및 녹지의 종류 (중점사항)	공원(도시개발, 금오산 도립), 녹지(공단 완충지대), 소공원, 가로수(공단, 택지지구), 수벽, 꽃길조성			공원 (어린이, 근린, 분수광장), 녹지(주택, 국도변), 가로수 (하천, 도변), 수벽, 꽃길	공원 (어린이, 근린), 구획정리지구 소공원, 녹지(택지, 완충, 가로수(보식), 쉼터(자투리), 삼림욕장, 담장허물기 (공공기관)	공원 (친환경, 어린이, 생태), 녹지(고속도로 주변관문경관), 가로수 (태풍 재해 복구, 수종갱신) 학교숲 조성, 휴양림, 가로화단	도시숲 (상업지, 고속도로변), 공원(산립휴양, 산악레포츠), 녹지축 연결, 생태숲, 벽면녹화, 금오지 올레숲길, 소공원, 쌈지마당, 교통섬, 장미터널, 담장허물기(민간)	도시숲(철로변), 공원(수변, 산림, 낙동강 체육), 녹지(녹도, 완충), 생태하천 및 습지 복원, 생물서식공간 (Bio-top)조성, 문화재 주변 녹화, 원평그린웨이, 녹색 복지숲, 도시림조성, 옥상조경	민간공원(4개소), 공원(묘지, 산림, 파크골프, 체육, 레포츠 체력, 캠핑장), 녹지(연결, 강변, 경관), 낙동강 주변 숲길조성, 나눔숲, 들배나무조림숲, 산림에코센터, 유아숲 체험원
조성 주체의 특징	담당부서 입안자 + 전문가 + 단체(관변): 관 주도형, 형식적, 하향적 지시체계			담당부서 입안자 + 전문가 + 단체(그린오너): 관 주도형, 일부 민간협의, 하향적 지시체계			전문가 + 시민단체 + 담당: 공공·민간협의, 자발적, 수평적		시민단체 + 담당 + 전문가: 민간주도형, 자발적, 수평적
시민참여	관변단체(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 협의회, 농업인협의회, 자연보호 협의회 등)				그린오너제 (24개 단체 협약)		나무사랑시민연합, 구미사랑시민회의	구미조경인 협회	도시숲 트러스트
본예산/공원예산 (백만원)재정비율	7,300/48 0.66%(78년)	14,390/166 1.15%(83년)	71,347/613 0.86%(88년)	310,243/3,943 1.27%(95년)	415,647/3,525 0.85%(99년)	541,777/8,761 1.62%(02년)	737,282/17,954 2.44%(06년)	1,159,875/28,783 2.48%(10년)	1,120,000/45,620 4.07%(17년)

중심으로 녹화정책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시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양·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개발과 시민, 민간단체 등의 의식수준의 변화와 함께 장기적 안목을 통한 공원·녹지의 활성화 방안, 녹화정책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공원·녹지 조성체계 확립을 위한 녹화정책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박미호, 이명우(2002)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녹지보전과 녹화추진방안. 한국조경학회지, 30(2): 23-38.
2. 손상락, 이성용(2005)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주민의 의식분석과 정책에의 활용방안. 서울도시연구, 6(4): 21-36.
3. 송태갑, 안봉원(1994)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제도와 정책의 전개과정 및 적용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2(2): 33-43.